

한국 최초의 근대 음악교과서 『보통교육창가집』(1910) 가사 출전 연구* - 새로운 출전 가사의 특징과 의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urces of Lyrics in *Botong gyoyuk changgajip* (1910), Korea's First Modern Music Textbook: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New Lyrics

박효경** · 권희주***

Hyokyung Park · Heeju Kw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최초의 근대음악교과서인 『보통교육창가집』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굴한 조선어 가사의 출전을 보고하고 수록 가사의 특징을 검토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육창가집』의 편찬 배경을 살피고, 수록된 27곡을 대상으로 기존에 알려진 출전과 새롭게 발견된 자료를 정리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에는 한국의 전통 노래가 1곡이었다고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로 1곡을 추가 발견해 총 2곡임을 알 수 있었고, 일본어 가사 포함 총 4곡의 출전을 새롭게 규명했다. 가사의 특징으로는 첫째, 다양한 운율과 문체가 혼재되어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노랫말이었다. 둘째, 일본의 창가를 번역한 경우는 일본의 역사, 지리, 군가 등 일본 특성이 짙은 가사는 배제되었다. 셋째, 새로 발굴된 가사는 조선의 사실시조, 『명심보감』에서 발췌됐고, 조선의 교육관과 시어가 반영되었다. 이로써 『보통교육창가집』은 단순한 일본 창가의 번안본이 아니며, 한정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에서도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자 시도한 교과서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보통교육창가집, 근대음악교과서, 조선어 창가, 한국 근대음악교육, 가사 출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on the newly discovered Korean lyrics of *Botong gyoyuk changgajip*(1910) the first modern music textbook in Korea, and to shed light on textbook's historical value by re-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lyrics. Both previously known and newly discovered sources for the 27 songs included in *Botong gyoyuk changgajip* were summarized and analyzed closely. Previously, only one traditional Korean song was identified; this study, however, found one more song, indicating that there were a total of two songs. The sources for three out of 13 songs of unknown origin were also newly identified. First, with its variety of rhymes and styles, changga lyrics were characterized as forming part of transitional songs from pre-modern to modern times. Second, when translating Japanese changa, lyrics with strong Japanese characteristics (e.g., Japanese history, geography, and military songs) were excluded. Third, the newly discovered lyrics were extracted from Joseon's Sijo and Myeongsimbogam and reflected Joseon's educational views and poetry. It was confirmed that *Botong gyoyuk changgajip* is not just another version of Japanese changa, but a textbook that attempted to contain Joseon's cultural identity, even in limited political situations.

Key words: *Botong gyoyuk changgajip*, modern music textbook, Korean Changga, modern music education in Korea, source of lyrics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KU Research Professor Program at Konkuk University.

** First author, E-mail: 1130002@hycu.ac.kr

Associate Professor, Hanyang Cyber University, 220,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iawase@konkuk.ac.kr

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I. 서론

본고는 한국 최초의 근대 음악교과서인 『보통교육창가집(普通教育唱歌集)』(1910)의 가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발굴한 조선어 가사의 출전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 출전 창가로 알려진 가사의 특징을 재검토하여 『보통교육창가집』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1895년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반포 뒤 1905년 을사늑약까지 대한제국에 설립된 학교는 관공립 포함 60여개교에 이르렀다. 이때까지 ‘창가’는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관공립학교에서의 상황과 달리 사립학교나 미션스쿨에서의 창가 교육은 활발하였다(Ko, 2004). 창가는 1906년 ‘보통학교령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창가의 교과 목표는 “평이한 가곡을 부르게 하여 미감을 기르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1900년에 공포된 일본의 ‘소학교령시행규칙’에 명문화된 교육 목표와 유사하다(Korean empire government gazette, 1906).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교육 시스템을 근대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1872년에 반포된 학제에서 음악 관련 교과로 ‘창가’를 규정하였다.

1877년 문부성은 산하에 음악조사계(音樂取調掛)를 설치하고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와 이자와 슈지(伊沢修二)가 미국의 음악교육 전문가 루터 메이슨(Luther W. Mason)을 초빙한 이후 일본 최초의 근대 음악교과서인 『소학창가집(小学唱歌集)』(1881-1884)을 발행하고 음악 교사를 양성하는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일본 창가 교육에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메가타 다네타로는 1904년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들어와 공립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1905년 일본인 학부참여관 밑에 위원회를 조직하고 학부 교과용 도서 편찬에 착수했다. 1906년에는 보통학교용 교과서 일부가 발행되었고 학부 편찬의 교과서들이 제작되면서 교과서의 검인정 제도가 생기기에도 이르렀다(Park, 1996). 본 연구의 대상인 『보통교육창가집』은 공교육에 이용된 학부 발간 최초의 음악교과서로, 한국 근대 음악교육의 출발점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기존의 『보통교육창가집』 관련 연구는 주로 수록곡의 일본 출전과 곡목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영향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고 우리의 정서가 녹아들지 못한 교과서라는 평가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에서 발행된 첫 ‘조선어’ 창가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통교육창가집』 바로 다음 출간되어 공교육에 이용된 『신편창가집(新編唱歌集)』(1914)은 총 41편의 창가 중 조선어 가사의 창가가 6편에 불과하며, 이후 출간되는 1945년까지의 음악교과서는 모두 일본어 가사가 중심이다. 즉 1945년 이전 공교육에서 사용한 음악 교과서 중 수록 창가가 모두 조선어인 것은

『보통교육창가집』이 유일하며, 그 가사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보통교육창가집』의 편찬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에 출처가 있는 가사의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가사의 출전을 분석하여 한국 근대 음악교육의 출발점인 『보통교육창가집』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1911년 8월에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 이후의 창가집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소기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이에 비해 『보통교육창가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교육창가집』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식민지시기 음악교육의 전개에서 『보통교육창가집』이 갖는 의미, 또 다른 하나는 『보통교육창가집』의 출전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식민지시기 음악교육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노동은의 연구는 선구적이다. 일찍이 그는 저서 『한국근대음악사』에서 『보통교육창가집』의 특징을 6가지로 언급하였다. 이 창가집이 통감부의 통제된 음악 정책 속에서 출간되었다는 것, 민족정신을 나타내는 노래는 철저히 배제되고, 농촌의 생산활동을 독려하며, 일본 전래의 노래들을 그대로 번역하여 일본 정서화를 도모했다고 지적한다. 또 서양음악을 일본식으로 해석함으로써 해석 정보를 일본이 독점하였으며, 일본인 작품과 서양 민요로 채워 한국음악 정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하였다(Noh, 1995).

이후 일본에서는 고인숙이 『근대 조선의 창가교육(近代朝鮮の唱歌教育)』에서 한국의 창가 교육에 영향을 끼친 메가타 다네타로, 이자와 슈지, 고이데 라이키치(小出雷吉) 등과 같은 인물의 행적을 통해 일본의 영향을 고찰하고 각종 법령을 검토하여 통감부의 교육 정책을 분석하였다(Ko, 2004). 또 김경인은 ‘애국, 독립창가’의 음악적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1914년 만주의 광성중학교에서 편찬한 『최신창가집』과 『보통교육창가집』의 상관성을 살폈다. 특히 이미 귀에 익숙한 곡조를 차용하여 독립 창가를 전파함으로써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내용이 우리 민족의 뇌리에 보다 쉽게 각인되게 하였다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식민교육의 잔재로 평가되는 창가 연구의 방향성에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Kim, 2014).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근래에 들어 허지연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1차 조선교육령 이후의 조선총독부 창가집과 일본 문부성 창가집을 비교 검토하여 시기별 창가집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조선인’을 위한 창가를 선별,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는 문부성 창가집을 ‘닮은’ 조선인용 창가집 제

작, 제3차 조선교육령기에는 전시체제에 대응하는 창가, 국민학교 규정 이후에는 문부성 창가집과의 차이를 최소화했다는 창가집 역사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덧붙여 “총독부 창가집을 폭압적 ‘식민교육’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논한다면 “일제강점기 한국의 사정을 지나치게 고립시켜 근대 동아시아사, 더 넓게는 세계사의 맥락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창가집의 의미를 다시금 진단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Huh, 2022).

근대 동아시아사 혹은 세계사의 맥락에서 창가 교육을 고찰하는 시각은 일본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야스다 히로시(安田寛)는 19세기~20세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이루어진 아시아와 환태평양지역의 음악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창가가 실은 식민지 각 지역에 유입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혔다(Yasuda, 1999). 또 오다 도시카(小田敏花)는 19세기 말 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히 진행되었던 서양음악의 글로벌화와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기가 겹치면서, 한일 양국 모두 창가의 가사가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흐르게 된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Oda, 2009). 근대 한국과 일본의 창가교육사를 재고하는 것이 곧 일본의 식민지주의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흐름으로는 『보통교육창가집』의 출전에 관한 연구이다. 노동은과 민경찬의 연구는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노동은은 『보통교육창가집』의 일본 출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Noh, 1995), 민경찬은 근대 음악에 관련된 1차 자료의 발굴 및 검증 작업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1945년 이전에 출판된 창가집 120여 편의 총목록을 작성, 해제를 진행하였다(Min, 1997). 이를 통해 미발굴 창가집의 발견, 제목만 전해지던 창가의 실체 등을 포함해 기존 연구의 정보를 보완, 수정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보통교육창가집』에 수록된 곡들 또한 간략한 해제를 통해 출전 정보 등이 정비되어 후속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박은경은 『보통교육창가집』에 수록된 곡들의 박자, 장조, 요나누키 음계의 여부, 마디 형식을 분석하여 곡조 출전 연구에 기여하였으며(Park, 2001), 김병선은 한국 근대의 신시 형성과 창가 가사와의 관계를 통해 『보통교육창가집』의 운문 가사를 분석하였다(Kim, 2007).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창가집과의 비교를 통해 서양곡의 곡조를 차용한 창가와 일본인이 작곡한 창가를 구별하고 일본 출전 창가의 변안 여부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다만 곡조가 아닌 가사의 측면에 있어 일본어 출전이 없는 창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통교육창가집』의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다는 연구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 출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구성 및 가사의 형식, 번역, 구체적 내용 등을 살피고, 새로 발굴한 출전에 대한 보고와 분석을 통해 『보통교육창가집』의 특성을 규명하도록 한다.

III. 본론

1. 『보통교육창가집』의 편찬 배경

한국에서는 근대식 학교가 세워진 19세기 말엽부터 학교 창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이후부터 『대한매일신보』, 『태국신문』, 『황성신문』, 『만세보』 등의 신문이 각 학교의 행사를 보도하면서 그때 부른 창가들을 채록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4.4조류의 창가가 불렸지만, 새로운 율조의 창가도 이즈음 선보이기 시작했다(Kim, 2007).

『보통교육창가집』의 편찬 배경에는 창가를 둘러싼 통감부의 교육정책과 우리 민족의 사립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공적 교육의 측면에서는 일본인 교원의 증가와 교과서 규제를 들 수 있다. 학부의 학정 참여관으로 있으면서 학교 행정과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시데하라 다이타(幣原坦)는 일본인의 학교 행정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공립학교 교원의 70%를 일본인 교원으로 채용하였다(Ko, 2004). 또 1908년 8월 학부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학부령 제16호)을 제정하고, 음악과에서는 일본 창가집 『심상소학창가』(1905~1906)와 『찬미가집』 2종만을 정식 교과서로 인가하였으나 후에 『찬미가집』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심상소학창가』는 유일한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이 『심상소학창가』는 일본 문부성 창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1910년 발행 국정교과서 『심상소학창가』(1910)와는 다른 교과서로, 사사키 기치사부로(佐佐木吉三郎), 노쇼 벤지로(納所弁次郎), 다무라 도라조(田村虎蔵)가 작곡, 편찬한 것이다. 『보통교육창가집』이 발간되기 전까지 일본의 창가집인 『심상소학창가』를 한국의 공교육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교과서가 통감부의 교육방침에 일정 정도 부합하였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통감부가 많은 창가집 중에서도 『심상소학창가』를 허가한 이유로는 고이테 라이키치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문부성 초대 음악조사계장 이자와 슈지는 음악조사계 출신 고이테 라이키치를 한성사범학교 음악 담당자로 임명하고 사범교육과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일본의 창가를 도입하여 식민지시기 창가 교육을 개시하였다(Yasuda, 1999). 그는 1907년 조선으로 건너와 활발히 활동했으며, 1909년 2월에는 관립한성사범학교 부교수로 임명되기도 하였다(“The notice of appointment(敍任及辭令)”, 1909). 고이테 라이키치는 앞서 언급한 다무라 도라조의 제자로 함께 창가집도 출간한 경험이 있으며, 『심상소학창가』는 바로 그의 스승 다무라 도라조가 만든 창가집이었다.

한국의 사립, 민족교육의 측면을 살펴보면 1900년대 한국 내에서는 이미 애국적인 창가 부르기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김수현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00년대에는 거의 모든 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개교식, 운동회 등에서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른 뒤 만세

삼창으로 끝내는 순서가 의례적이었다(Kim, 2021a). 자주독립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국가와 독립가는 주로 『독립신문』을 통해 발표되었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애국창가가 불리자 통감부에서는 ‘불온창가’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였다(Kim, 2021b).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상황은 확인된다.

訓禁唱歌各學校에서 歌詞의 不穩當한 唱歌를 禁止하라고 本年六月分에 學部에서 訓飭하얏으나 尙今까지 應用하는 學校가 有하다 하야 漢城府及各觀察道에 訓令하고 一層 注意하야 嚴禁하라 하얏다더라 (“Banning Changa(訓禁唱歌)”, 1909)

從來各學校에서 愛國에 關한 政治的唱歌를 教授함이 現教育方針上에 不適當하다하야 今回學部에서 普通教育唱歌集第一輯을 編纂하였는데 初等及高等教育에 並用할터이라하며 第二輯도 本年內에 發行한다더라 (“Changga Confiscation(唱歌押收)”, 1910)

첫번째 기사의 “가사의 불온당”함은 다음의 기사에서 바로 “애국에 관한 정치적 창가”임이 드러나며 이러한 “가사”가 현 교육방침과 맞지 않아 “엄금”한다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학부의 『보통교육창가집』 발간이 애국창가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는 명확해 보인다. 또한 『보통교육창가집』은 결과적으로 1집 발간에 그쳤지만 2집도 함께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용되던 『심상소학창가』나 다른 일본의 창가집을 참조한다면 2집은 아마도 지리, 역사, 이과 등의 교과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 발간된 『보통교육창가집』의 예언(例言)은 전부 3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一 本書는普通學校、師範學校、高等學校、高等女學校等其他一般諸學校에서教授할目的으로 纂編한者이라
- 二 本書는教師用又는學員、學徒用으로使用할을得이라
- 三 本書는學校에서教授할뿐만아나라家庭에서使用함도亦可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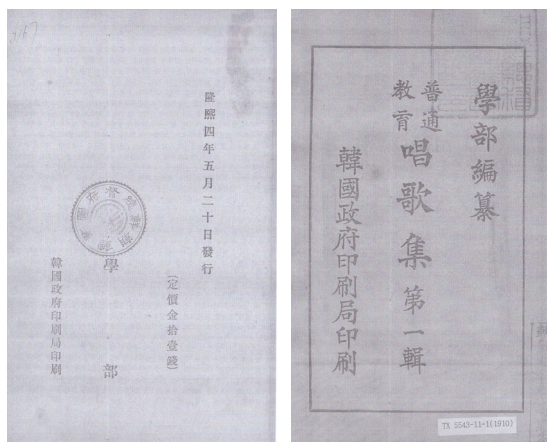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보통교육창가집』이 보통학교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가집의 모범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국창가가 널리 퍼지는 것에 대한 견제로서 출간된 이 창가집이 음악교육에 가장 합당한 것임을 나타낸다. 둘째로 음악교과서의 허가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1908년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공포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사용된 민간 교과서가 허가받지 않은 교과서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성식이 지은 『중등창가(中等唱歌)』의 경우 출판물 위반을 근거로 발매 금지 및 압수 조치를 당한 사례가 있어 창가집의 허가는 음악교육에 있어 중요한 이슈였다(“Able to know the police”, 1910). 셋째로 일반 가정에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8세 이상 입학가능한 보통학교 학습자의 정서 함양에 오롯이 그 주안을 두었다기보다 음악교과서의 내용을 전국민에게 확산하는 것 또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당시 조선 민중이 많이 부르는 애국창가 대신 즐겨 부르게 할 새로운 창가의 마련도 통감부 정책에 있어 대단히 주요한 지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보통교육창가집』이 편찬된 배경으로는 첫째, 민간의 교육에서 사용하는 음악교과서가 통감부의 교육방침과 달랐고 애국적 색채가 강했다는 것, 둘째, 일본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조선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했다는 것, 셋째, 규범적인 창가를 제시하여 노래를 통해 조선 민중에게 통감부 정책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2.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 출전

『보통교육창가집』은 융희(隆熙) 4(1910)년 5월 20일 조선의 학부에서 발간하였으며 한 국정부인쇄국에서 인쇄되었다. 편집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더 많은 자료의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통교육창가집』은 1914년 『신편창가집』이 출간되기 전까지 5년간 공적인 음악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총독부기증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Botong gyoyuk changgajip

『보통교육창가집』은 [Figure 2]와 같이 총 2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	제목	페이지
一八	學生歌	三八
一九	楓松	三八
二〇	四時歌	三九
二一	春朝	四〇
二二	勸學歌	四一
二三	農天歌	四二
二四	修學旅行	四三
二五	公餘歌	四四
二六	運動歌	四五
二七	卒業式	四六
一	第一	一
二	第二	二
三	第三	三
四	第四	四
五	第五	五
六	第六	六
七	第七	七
八	第八	八
九	第九	九
一〇	第十	一〇
一一	第十一	一一
一二	第十二	一二
一三	第十三	一三
一四	第十四	一四
一五	第十五	一五
一六	第十六	一六
一七	第十七	一七

[Figure 2] Table of contents of *Botong gyoyuk changgajip*

가사를 기준으로 하면 출전은 모두 4가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전통 노래 2곡, 둘째,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이하 『국어독본』) 출전 명시 7곡, 셋째, 일본어 가사 출전이 있는 9곡, 넷째, 아직 출전이 밝혀지지 않은 미상 13곡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31곡이지만, 『국어독본』 출전 노래 중 4곡은 일본어 가사 출전과 중복이 되어 모두 27곡이다. 적어도 가사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 창가집에서 대부분의 곡을 가져왔다는 선행연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전은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Kim, 2007; Kim, 2014; Min, 1997; Noh, 1995; Park, 2001) 관련 문헌에서 해당 창가를 찾아 직접 원문을 대조하였다. 일본 출전으로 알려진 경우는 원곡이 실린 일본의 창가집을 조사하여 가사를 모두 직접 대조, 확인하였다. 한 곡이 여러 창가집에 실린 경우가 많아 초출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원문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 및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도서관 소장본을 검색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출처 미상의 경우는 1910년 이전에 발행된 관보와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고시조대전』의 조선 후기 사설시조, 조선시대 교육에 사용되었던 문헌과 많이 유했던 시가를 중심으로 가사 출처를 확인하였다. 출전창가집의 상세 사항은 2장 말미에 후술한다.

각 출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보통교육창가집』에는 한국의 전통 노래가 2곡 수록되어 있는

데, <제3 달>이라는 곡과 <제20 사시경(四時景)>이다(창가 제목은 초출만 한자 병기하고 이하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기존에는 1곡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20 사시경>을 발굴하였다. 이는 3장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보통교육창가집』 중 달을 노래한 곡은 모두 두 곡인데 <제2 月>과 <제3 달>이 있다. 『보통교육창가집』의 노래 제목은 한글 혹은 한자로만 표기되는데, <제3 달>은 두번째 곡 <제2 月>과 실질상 제목은 같지만, 가사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제3 달>의 곡조는 일본의 『교과적용 유년창가 초편(初篇) 중권(中卷)』(1901)에서 가져왔으나, 가사는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 텅텅이, 놀든달아”와 같이 한국의 전통 노래를 가사로 붙여 당시 조선의 학습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보통교육창가집』에 『국어독본』으로 가사의 출처가 표기된 곡은 모두 7곡으로, <제4 종이연(紙鸞)과 땡이>, <제5 시계(時計)>, <제7 나비(蝶)>, <제8 이양(移秧)>, <제11 학문가(學問歌)>, <제13 표의(漂衣)>, <제17 선우(善友)>이다. 이들 7곡은 모두 『국어독본』의 운문을 그대로 혹은 약간 개작하여 창가의 가사로 삼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독본 교과서와 창가 가사와의 상호 관계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구조이다. 창가는 멜로디와 가사가 어우러짐으로써 학습자의 미적 감각과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지만, 1900년대 초 일본의 창가집 발간에서는 ‘가사’의 중요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국정교과서의 부재이다. 1903년 일본에서 국어, 수신, 역사, 지리의 국정교과서는 출간되었으나 창가 과목의 국정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출간된 창가 교과서의 이름을 보면 『국정소학독본창가』 등과 같이 ‘국정’이 붙은 교과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국정으로 출간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국정으로 출간된 교과서에서 가사를 발췌하여 제작하였다는 의미이다. 당시 음악교과서 제에 다무라 도라조 등 내로라하는 작곡자들의 물밑 경쟁은 매우 심했다. 국정화 다음해인 1904년 다무라 도라조가 『국정소학독본창가』를 발행하자 경쟁하듯 도쿄음악학교도 『국정소학독본창가집』을 발행한다. 이에 다무라 도라조 등이 또다시 『심상소학창가』(1905-1906)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창가집 판매에 정부의 기준을 준거로 했다는 점은 주요 판매 전략으로 이용되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교과 통합을 들 수 있다. 교과 통합이란 독일의 교육학자 헤르바르트(J. F. Herbart, 1776~1841)의 ‘중심통합법’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헤르바르트 학파의 교육학은 근대계몽기에 소위 ‘선진문물’의 하나로서 외국의 교육적 방법론을 배워 당시의 교육을 바꾸고자 했던 근대 일본과 구한말 한국의 교육학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Jeon & Kim, 2020). 다방면으로의 ‘흥미’를 육성하여 학생의 도덕적 성격 형성으로 연결한다는 헤르바르트의 논의에 대해, 일본에서는 여러 과목에서의 유사한 소재를 다루

어 서로 연결하고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음악 교육 분야에서는 국어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소재의 운문을 다시 창가의 가사로 삼아 심화 이해를 도모한 것이다. 이처럼 『보통교육창가집』에서도 일본의 창가 제작 방법을 도입하여 『국어독본』의 운문을 창가의 가사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일본어 가사 출전이 있는 곡은 모두 9곡으로, <제1 기러기(雁)>, <제2 달(月)>, <제5 시계>, <제6 토끼(兔)와 거북(龜)>, <제7 나비>, <제8 이앙>, <제10 나아가>, <제11 학문가>, <제14 갈지라도>이다. 이들 노래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곡조와 가사 모두 일본 창가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14 갈지라도>의 가사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창가집대전 권1(唱歌集大全卷之一)』(1903)에 창가 <갈지라도(行けども)>가 실려 있으며, 이 일본어 가사와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가사의 출전이 밝혀지지 않은 창가는 모두 13곡으로, 이 중 10곡의 곡조는 밝혀졌고 3곡은 곡조도 밝혀지지 않았다. 곡조는 일본 창가에서 취했지만, 가사를 새롭게 한 것은 <제9 공부(工夫)>, <제12 사절가(四節歌)>, <제18 학도가(學徒歌)>, <제19 식송(植松)>, <제21 춘조(春朝)>, <제22 근학가(勤學歌)>, <제23 농부가(農夫歌)>, <제24 수학여행(修學旅行)>, <제25 공덕가(公德歌)>, <제27 졸업식(卒業式)> 모두 10곡이며, <제15 부모(親)의 은혜(恩)>, <제16 스승(師)의 은혜(恩)>, <제26 운동가(運動家)>는 곡조, 가사 모두 미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제22 근학가>, <제25 공덕가>의 가사 출처를 새로 발굴하였는데 다음 장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곡조를 가져왔음에도 『보통교육창가집』에서 가사를 새롭게 제작한 창가는 일본 관련 정보가 많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제18 학도가>의 원곡은 <철도창가(鐵道唱歌)>로 제1집이 66절까지 구성되고 일본의 지리를 자세히 서술하기 때문에, 가사를 번역하여 우리 창가집에 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제19 식송>은 일본의 전통시가집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에 실린 <바라다보면(見渡せば)>으로, 일본 고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이다. <제22 근학가>는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용감한 수병(勇敢なる水兵)>이라는 군가이며, <제25 공덕가>는 일본의 충신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를 소재로 한 <사쿠라이 결별(櫻井訣別)>이라는 곡에서 곡조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역사, 지리, 전통 시가, 군가와 관련된 경우는 모두 새롭게 우리말 가사를 붙여 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가사 출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 雁

일본 『小学唱歌 壱』(1892) <かり>

제2 月

일본 『国定小学読本唱歌集』(1904) <オツキサマ>

제3 달	한국의 전통노래
제4 紙鳶과뽕이	『국어독본』 5권 제6과
제5 時計	『국어독본』 5권 제19과 / 일본 『国定小学読本唱歌集』(1904) <とけい>
제6 兔와龜	일본 『教科適用 幼年唱歌』(1901) <うさぎとかめ>
제7 蝶	『국어독본』 6권 제7과 / 일본 『小学唱歌集』(1881) <蝶々>
제8 移秧	『국어독본』 7권 제14과 / 일본 『国定小学読本唱歌集』(1904) <田植え>
제9 공부	출처 미상
제10 나아가	일본 『幼稚園唱歌』(1887) <進め進め>
제11 學問歌	『국어독본』 7권 제19과 / 일본 『新編教育唱歌』(1896) <金剛石>
제12 四節歌	출처 미상
제13 漂衣	『국어독본』 8권 제2과
제14 갈지라도	일본 『唱歌集大全卷之一』(1903) <行けども>
제15 親의恩	출처 미상
제16 師의恩	출처 미상
제17 善友	『국어독본』 8권 제12과
제18 學徒歌	출처 미상
제19 植松	출처 미상
제20 四時景	임중환의 『시조연의(詩調演義)』 수록 시조
제21 春朝	출처 미상
제22 勤學歌	『명심보감』 권학편 / 도연명의 잡시 12수 중 제1수
제23 農夫歌	출처 미상
제24 修學旅行	출처 미상 / *일본 『新編教育唱歌集』(1896) <修学旅行> 원문 대조 결과 상이함
제25 公德歌	일본 『公德唱歌 東京府民』(1903, 自省堂) 『公德唱歌』(1901, 有斐堂), 『公德唱歌』(1901, 晩翠社)와 유사
제26 運動歌	출처 미상
제27 卒業式	출처 미상 / *일본 『尋常小学唱歌』(1906) <別れの歌> 원문 대조 결과 상이함

*는 일본 창가집 출처라 알려져 있었으나 원문 대조 결과 상이한 경우를 표시함

이상과 같이 『보통교육창가집』 27곡의 가사는 일괄적으로 일본의 창가집에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노래, 독본 교과서, 일본의 창가집 등 노래의 제목에 따라 가사를 작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사들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3.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 분석

『보통교육창가집』 수록 가사에 대해 첫째, 『국어독본』 출전이 명시된 경우, 둘째, 일본 가사 출전이 있는 경우, 셋째, 새롭게 발굴한 출전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어 번역 및 강조 부분의 밑줄은 모두 논자에 의한 것이다.

1) 『국어독본』 출전

전술한 바와 같이 『보통교육창가집』에서 『국어독본』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곡은 총 7곡이다. 이 중 <제5 시계>, <제7 나비>, <제8 이앙>, <제11 학문가>의 4곡은 일본의 『국정소학독본창가집 심상권의 상(尋常卷之上)』(1904) 등 일본의 독본 창가집에도 게재되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 4곡의 실제 가사를 비교해보니 일본의 창가와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가 유사한 곡은 <제11 학문가> 단 한 곡뿐이었고, <제5 시계>는 부분적으로 유사하며 <제7 나비>와 <제8 이앙>은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7 나비>의 1절 가사를 일본의 창가 <나비(蝶々)>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교육창가집』 <제7 나비>

1절 더나비야 더나비 이리와서 노려라 화계우에 도흔꽃 웃는다시 뛰었다
향기년도 맑거든 술맛쫓쫓 달구나 더나비야 더나비 꽃속에서 잠즈나

『소학창가집 초편(小学唱歌集 初編)』(1881) 제17곡 <나비>

1절 蝶々 蝶々 菜の葉に止れ 菜の葉に飽たら 桜に遊べ
(나비야 나비야 배춧잎에 앉아라 배춧잎에 싫증나면 벚꽃에서 놀아라)
桜の花の 栄ゆる御代に 止れや遊べ 遊べや止れ
(벚꽃이 만개한 이 시대에 앉아라 놀아라 놀아라 앉아라)

원곡의 1절 가사는 일본의 국학자 노무라 아키타리(野村秋足)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에도시대부터 불리던 ‘와라베우타(童歌)’라는 것이 밝혀졌다(Sato & Matsunobu, 2015). 와라베우타는 예부터 전승되어 오는 일본의 놀이 노래이다. 『보통교육창가집』의 노래는 원곡의 가사와 도입부가 같고 꽃 위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묘사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배춧잎’, ‘벚꽃’ 등 개개의 어휘는 다르다. 또한 원곡의 ‘만개한 이 시대’는 풍요로운 천황의 치세를 일컫는 것으로 우리말 가사에 반영하기 어려울 내용이 다. <제7 나비> 가사는 이미 학부에서 발간한 『국어독본』에 게재되어 있던 운문을 약간

고쳐서 『보통교육창가집』에 실은 것으로, 『국어독본』 게재 단계에서 우리의 정서를 고려하여 일본색을 지운 운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8 이양> 또한 일본 출처로 알려진 ‘모내기(田植え)’와는 상당 부분이 다르다. 차이가 현저한 2절만 제시하도록 한다.

『보통교육창가집』 <제8 이양>

2절 여기서는 소몰이 급히 논갈고 더기서는 벼모를 밭비 심는다

康衢烟月 擊壤歌 서로 붙으며 瞬息間に 논빛은 青々히얌네

『국정소학독본창가집 심상권 중(尋常卷之中)』(1904) 제2곡 <모내기>

2절 これから たびたび 田草とり しだいに てかずが ふえていく

(이제부터 자주 논에서 잡초를 뽑는다 점점 손길이 늘어나고 있다)

どうぞ あきまで つごよく 天気もつづけ 雨もふれ

(부디 가을까지 좋은 상황에 맞춰 날씨도 계속 좋아라 비도 내려라)

원곡에서는 모내기를 묘사하며 농사에 알맞은 날씨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지만, <제8 이양>에서는 작업에 대한 묘사에 ‘강구연월(康衢烟月)’, ‘격양가(擊壤歌)’ 등 중국의 고사에 나온 표현을 인용한다. 강구(康衢)는 사통오달의 큰길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거리, 연월(烟月)은 연기가 나고 달빛이 비친다는 뜻으로 태평한 시대의 평화로운 풍경을 말한다. 격양가(擊壤歌)는 중국 고대 요임금 때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거워하여 땅을 치면서 불렀다는 노래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창가에서 소재를 취하면서 우리말 가사로 만들 때는 조선의 식자층으로서 알고 있는 혹은 알아야 하는 중국의 고사 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월’, ‘격양가’는 <제23 농부가>의 가사에도 다시 등장하여 태평성대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국어독본』 출전 창가는 일본의 창가로 알려진 측면이 있으나, 이번 가사의 대조를 통해 우리의 정서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조선 지식인의 시적 표현 또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본어 가사 출전

일본어 가사 출전이 존재하는 경우는 크게 일본어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여 가사 내용이 동일한 것과, 제재만 가져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가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

먼저 전체적으로 번역한 것에는 <제1 기러기>, <제2 달>, <제6 토끼와 거북>, <제10 나아가>, <제11 학문가>, <제14 갈지라도>가 있다. 먼저 이중 <제2 달>의 가사를 원곡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 달>

1절 아바님 어마님 속히나와 보시오 밝은달이 소섯소

2절 둥글고 둥글어 공과갓치 둥글게 더산우에 소섯소

『국정소학독본창가집』(1904) <달님(オツキサマ)>

1절 おとうさん おかあさん はやく でてごらんよ おつきさまが できました
(아버님 어머님 빨리 나와 보세요. 달님이 나왔어요)

2절 まるく まるく まんまるく まりのように まんまるく もりの うえに できました
(둥글게 둥글게 동그랗게 공과 같이 동그랗게 숲 위로 나왔어요)

~調四拍子 ♩=120

オツキサマ
The Moon

一 オトコサン オカアサン ハヤクデテゴランヨ オツキサマガ デマシタ
Dad. Mom. come out quickly. The moon has come out.

二 まるく まるく まんまるく まりのように まんまるく もりの うえに できました
Round and round, perfectly round. Just like a ball, perfectly round. Rising above the forest.

[Figure 3] The sheet music for ‘Otsukisama’ from *Kokutei syougaku dokuhon syoukasyu*(1904)

● 第二 月

月
The Moon

一. 아바님 어마님 속히나와 보시오 밝은달이 소섯소
Father, Mother, come out quickly. The bright moon has risen.

二. 둥글고 둥글어 공과갓치 둥글게 더산우에 소섯소
Round and round, perfectly round, Just like a ball, perfectly round, Rising above the mountain.

[Figure 4] The sheet music for ‘Dal’ from *Botong gyoyuk changgajip*(1910)

한국어, 일본어 가사 모두 창가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7·5조의 운율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달님>의 1절 가사의 음절수는 5·5·5·4·6·4, 2절은 6·5·6·5·6·4의 구성이다. [Figure 3]에서 알 수 있듯 4·3이 되풀이되는 단순한 음표에 비해 가사가 길다. 이에 비해 『보통교육창가집』의 <제2 月>은 [Figure 4]의 가사 표기에서 알 수 있듯 음표와 음절이 적절히 대응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달님> 첫 마디는 1절 ‘오토우사양(オトウサン)’, 2절 ‘마루쿠마루쿠(まるくまるく)’와 같이 4음표에 5 혹은 6음절의 가사를 맞추었지만, <제2 月>의 첫 마디는 1절 ‘아버님’, 2절 ‘둥글게’로 3개의 음표에 3음절씩이다. 즉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음표와 음절을 적절하게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제14 갈지라도>는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출전을 발굴한 창가로, 일본의 『창가집대전 권1』(1903)의 <갈지라도(行けども)>와 가사가 같다. 이 곡 역시 전형적인 7·5의 운율이 아닌 4·4·6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일본어 가사를 대체로 옮겨왔으며 2절에는 “빅화가고, 빅화가도, 깎고도깎다”로 시작되는 배움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 공개는 지면 관계상 1절만 제시하도록 한다.

『보통교육창가집』 <제14 갈지라도>

1절 갈지라도 갈지라도 바다또한바다 한낱뜻해 다은물결 茫茫히도다,
바다라도 건너려면 능히건너리라 저어가세 저어가세 一心을모아서

『창가집대전 권1』(1903) <갈지라도>

1절 行けども 行けども 水又水 限りも 白浪 空浸たせる
(갈지라도 갈지라도 물 또한 물 끝없는 하얀 파도 하늘 잠기게 하는)
海路も 渡らば 渡りぬべし いざ漕げ 船人 いざ漕げ 漕げ
(바닷길도 건너야 한다면 건널 수 있다 자 저어라 뱃사람들이여 자 저어라 저어라)

<제2 달>과 <제14 갈지라도>의 우리말 가사는 표기, 문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본 원곡의 가사는 각각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의 문체 판정은 주로 조사, 조동사의 구별, 문말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2 달>에 ‘데마 시타(でした)’는 ‘나왔습니다’의 뜻으로 일상 회화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활용했지만, <제14 갈지라도>의 ‘건널 수 있다’에는 ‘베시(べし)’라는 문어체의 조동사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제2 달>과 <제14 갈지라도>의 우리말 가사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구별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일본어 출전이 있는 노래라도 『보통교육창가집』에 우리말 가사로 번역할 때에는 문체의 특징과 관련 없이 내용 전달에 주안을 두어 옮겨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24 수학여행>은 제목과 곡조가 같은 일본 창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곡으로 판단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이번 연구로 일본어 가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창가 가사는 4절까지 있지만 <제24 수학여행>은 2절로만 구성되어 있다. 가사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2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4 수학여행>

2절 薄言采 薄言取^ニ 花卉와 礦物 先生님 가라치신 理科의 實驗
可以^レ畫 可以^レ記^ス 勝地와 古蹟 先生님 가라치신 地歷의 材料
더山川 더風物의 無限^ニ 趣味 모도다 資益일세 修學의 旅行

『신편교육창가집(新編教育唱歌集) 제4집』(1896) 제19곡 <수학여행>

2절 野邊に花あり いざ摘まん 山に石あり いざ採らん
(들판에 꽃이 있으니, 자아, 꺾어 보자 산에 돌이 있으니, 자아, 채취해 보자
習ひし學科의 實驗も いざこの時ぞ おこたるな
(배운 학과의 실험도 지금이야말로 소홀히 하지 말라)
畫にして見たき 風景は 磯邊にたてる 松ひと木
(그림으로 보고 싶은 풍경은 해변가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곡은 체험학습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보통교육창가집』은 선생님께서 배우는 교과를 나열하는 등 학습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르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율은 양국의 창가 모두 7·5조이지만, 『보통교육창가집』 쪽이 한자어의 구성 비율이 높은 등 어휘 구성이 사뭇 다르다.

이상 일본 출전이 있는 경우의 창가 가사를 살펴보았다. 가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원곡의 구어체, 문어체 등 문체 차이와 관련 없이 주로 내용에 주안을 두고 옮겼다는 것, 대체로 한자표기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창가와 제재만 같고 가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는 한자어의 비중이 높고 학습에 집중된 내용으로 구성이 바뀌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보통교육창가집』의 새로운 출전

아직까지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 출전이 밝혀지지 않은 곡은 모두 11곡으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번 연구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출전 및 가사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제20 사시경>

<사시경>은 사계절의 풍경을 노래한 것으로, 아직 곡조의 출전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 창가의 가사는 조선 후기 시조창의 가집 『시조연의(詩調演義)』에 실려 있는 사설시조와 4절까지 완전히 동일한 것을 발견했다. 『시조연의』는 시조창의 이론과 총 115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무오증천사월 삼판 임중환 저(戊午仲年春四月三貫 林重桓 著)’라는 기록이 있어 편저자는 임중환이고 편찬연대는 1858년임을 추측할 수 있다. 시조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이론을 설명한 후 ‘창법’이라는 표제로 창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에 특징이 있다(Shin et al., 2012). 평시조는 초, 중, 종 3장으로 분단되고 각 장은 2구로 분단되는 것에 반해 사설시조는 이러한 격식을 지키지 않고 3장 8구 16절 이상의 경우로 늘어나는 경우이다(Won, 2005). 특히 사설시조가 시조창으로서 불리는 성격이 있다는 점은 창가 교육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0 사시경>과 동일한 임중환의 『시조연의』 사설시조 가사

- 一 東園에 花發 ㅎ고 南陌에 草綠 ㅎ니
蜂蝶의 世界로다 一時繁華는 너의가먼저
- 二 江南에 雨歇 ㅎ고 水北에 沙明 ㅎ니
鷗鷺의 生涯로다 淸流沐浴은 우리와갓치
- 三 風淸코 月明 ㅎ디 鴻雁이 高飛 ㅎ니
羈窓의 鄉思로다 長夜感懷는 古今이일반
- 四 萬山에 雪白 ㅎ디 松柏이 獨靑 ㅎ니
丈夫의 心事로다 千古特節은 누구가제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시경>은 당시의 새로운 7.5조 창가의 형식이 아니다. 1절 봄은 동원(東園)에 꽃이 피는 모습을, 2절 여름에는 “江南에 雨歇 ㅎ고” 즉 우리 전통 시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남에 비가 그친 뒤의 모습을 묘사한다. 3절 가을은 “鴻雁이高飛 ㅎ니” 즉 기러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4절 겨울은 겨울의 눈에 소나무가 홀로 푸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창가의 가사는 조선의 전통적인 시풍을 살리면서도 자연을 노래하여 학습자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사설시조의 가창 문화의 특성 또한 음악교과서에 적합하여 선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사 출전의 발견으로 이제까지 『보통교육창가집』에 한국의 전통 노래가 <제3 달> 단 1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2곡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제22 근학가>

<근학가>의 출전도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창가는 『명심보감』 권학편과 도연명(陶淵明)의 잡시(雜詩)에서 가사를 발췌한 것이다. 『명심보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인생의 행동규범부터 정치 이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한 도덕서로서 조선시대 가정과 서당에서 필수 교재로 널리 이용되었다. 조선시대 중기부터 『명심보감』은 본문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가감되며 시대에 맞는 기본교양서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중국, 일본과는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ng, 2006b). 일본에서는 『명심보감』이 에도 시대 중기 위정자와 지식인층에서는 활발하게 읽혔으나 에도 후기부터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의 성행으로 거의 읽히지 않는 상황이었다(Sung, 2006a).

도연명의 잡시도 역시 권학을 소재로 한 것으로 세월은 결코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으니 젊을 때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심보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출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2 근학가>

1절 少年은 易老하고 學難成하니 一寸의 光陰인들 不可輕이라
池塘의 春草夢을 未覺하여서 階前에 梧葉들이 已秋聲이라

『명심보감』 권학편

少年易老 學難成 一寸光陰 不可輕

(소년은 쉽게 늙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未覺池塘 春草夢 階前梧葉 已秋聲

(연못의 봄 풀 아직 꿈에서 깨지 않았는데 계단 앞 오동나무 잎이 이미 가을 소리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절의 경우 『명심보감』 구절에 조사와 술어만을 우리말로 붙여서 권학편을 풀어 읽는 형태이며,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학습하는 것을 계절에 빗대어 부르는 정취가 있는 노래이다.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창가의 가사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2 근학가>

2절 盛年은 한번가고 不重來하며 一日은 한번지고 難再晨

及時곳 하여서 常勤勉이니 歲月이 덧업서서 不待人이라

도연명 잡시 12수 중 제1수

1수 盛年不重來 一日難再晨

(젊음은 두번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이 두번오기 어렵다)

及時常勤勉 歲月不待人

(때를 놓치지말고 항상 근면하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2절 역시 도연명 잡시 12수 중 1수에서 가져온 가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형태이며, “한번 가고”, “한번 지고”와 같은 말을 삽입하여 음보율을 맞추고, 곡조의 가사 부분이 비는 것을 시가의 느낌을 살려 보충한 점이 흥미롭다.

또 3절의 “大禹는, 聖人이되, 惜寸陰 ㅎ니”라는 가사에서 “大禹”는 중국의 우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도연명의 증조부 도간(陶侃)이 위대한 우임금도 시간을 아끼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더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는 일화가 중국의 역사서 『진서(晉書)』 권66 도간전(陶侃傳)에 실려 있다. 도연명 역시 잡시 5수에서 “古人惜寸陰”이라며 옛사람이 시간을 아낀다는 시를 남겼다. 즉 3절은 도연명 잡시와 우왕의 고사 내용을 알고 있는 『보통교육창가집』 편찬자가 ‘근학’이라는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편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출전의 공통점은 창가 제목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모두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학문을 해야 한다는 계몽적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창가의 가사는 조선 전통의 교육관을 담보하면서도 시가의 정취가 살아있으며, 학문의 당위성을 서양의 곡조에 맞춰 널리 알리고자 했던 편찬자의 의도 속에 탄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제25 공덕가〉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아직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곡으로 <공덕가>가 있다. ‘공덕’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낯설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설명한 1절은 다음과 같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5 공덕가>

1절 公德이라 ㅎ는것은 그무엇인가 公-衆과 人-道를 爲함이니라

스름되고 마-스당히 힘쓸지로다 쉬운節例 말흘지니 들어보시오

사-나나무 썩지말고 壁書마시오 더욱우리 學校物品 사랑ㅎ시오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공덕은 “公-衆과 人-道를 爲함이니라 스름되고 마-스당히 힘쓸지로다.”라고 정의한다. 창가 가사의 내용에 국한하여 본다면 다수의 공중을 위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공중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질서와 규범을 알리는 것이기에 추상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교육창가집』에서는 공덕의 교육에 “쉬운節例 말 흘지니 들어보시오”라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예시를 들어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창가의 가사는 모두 5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창가에 비해서 분량이 길고, 학교 물품, 물건 관리, 시간 약속, 유실물 처리, 전염병 은폐, 외국인에 대한 예의 등 많은 사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 공중도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공덕’이라는 용어는 당시의 시대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일, 러일전쟁 기간 일본의 교육계에는 ‘공덕양성’론이 크게 유행하였다. 입헌체제하의 국민에게 필요한 법제 등을 교육하고 외국인의 거주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는 ‘내지잡거’의 실시로 ‘문명국민’의 도덕을 익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기 때문이다. ‘공덕’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문명론의 개략』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그는 서양의 moral을 ‘덕(德)’으로 소개하고 일본에는 사덕(私德)의 개념만 있을 뿐 ‘공덕’이 부재했음을 지적하였다(Hukui, 2019).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 1절에서 정의한 공덕의 내용으로 볼 때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야기한 공덕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발간된 『공덕창가: 도쿄부민(公德唱歌 東京府民)』(1903, 自省堂), 창가집 명은 같으나 출판사가 다른 『공덕창가』(1901, 有斐堂), 『공덕창가』(1901, 晩翠社)의 창가집과 유사한 면모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 창가집들은 모두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5 공덕가>

4절 門戶에나 船車에서 出入할적에
엿헤스름 밀치면서 爭先마시게
舉-動도 可憎하고 禮護아닐세

『공덕창가: 도쿄부민』

5절 鐵道馬車や汽車の中、込み合う場所の出入口
(철도, 마차나 기차 안, 붐비는 장소의 출입구)
先なる人を押しのけて、我先づそこに進み入る、
(앞선 사람을 밀고 나 먼저 나아가는 것은)
無禮粗暴のふるまひは、未開の民のすることぞ、
(무례한 행동은 미개한 사람이 하는 것이요)

『보통교육창가집』 <제25 공덕가>

4절 傳染病을 隠諱호면 남의을무오
心-術도 不正하고 衛生아니오

『공덕창가』(1901, 有斐堂) <유행병에 걸릴 때는>

流行病にかかりても うつらぬ様にするものは

(유행병 걸리면 옮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人の人たる道筋を 正しくふめるものぞかし

(사람이 사람인 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보통교육창가집』 <제25 공덕가>

5절 外國人を 미워하고 嘲弄마시오

『공덕창가』(1901, 晩翠社)

15~16절 外国人には尙更に

(외국인에게 더욱 그러하니 (중략)

或は侮りいやしめて、狭き心と笑はれな。

(업신여기고 미워해서 좁은 마음이라 비웃음 당하지말라)

일본 공덕창가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심상소학창가』의 작곡가이자 편자였던 다무라 도라조, 그리고 한성사범학교에 재직하였던 고이데 라이키치가 1901년 [Figure 5]와 같이 이미 『공덕창가』를 출간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一古	一う(へ)行	一さ	目次
机	道	くら	
作曲者	作曲者	作曲者	作曲者
小出雷吉	前田久八	納所辨次郎	田村虎藏

[Figure 5] Koutoku syouka(1901) of Tamura Torazo & Koide Raikishi

일본 공덕창가집의 구성은 많은 경우 오염물을 버리지 않거나 학교 물품 사용에 관한 주의점 등 주제별로 항목을 분류한 뒤, 구체적 사례를 간략하게 가사로 만든 창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보통교육창가집』과 유사하며 사례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창가를 부르는 학습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기보다 실천하기 쉬운 모범적 사례가 제시됨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구체적 행동규범으로

학습자를 이끄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덕가>는 1914년 조선총독부의 『신편창가집』의 발행에서는 의식(儀式) 창가로 통치 이념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변질되어 갔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 음악 교과서인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발굴한 가사의 출전을 명확히 하고 창가 가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가사 출전을 분석한 결과, 『보통교육창가집』은 한국 전통 노래, 국어독본, 일본 창가집, 미상의 출전 등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가사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 한국의 전통 노래가 1곡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제20 사시경> 1곡을 더 추가하여 2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출전 미상이었던 곡 중, <제14 갈지라도>, <제20 사시경>, <제22 근학가>, <제25 공덕가>의 출전을 새롭게 규명하게 되었다. 이번 『보통교육창가집』의 가사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의 형식면에서는 다양한 운율과 문체의 혼재가 특징적이다. 창가의 전형적인 7·5조 이외에도 4·3·4·3, 4·4·6 등 다양한 운율이 사용되었으며, 일본어 출전이 있는 가사의 경우에는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리듬에 맞춰 번역되었다. 일본 출전이 없는 가사는 4·4조 4음보 연속체의 전통적 율격을 계승하면서도 구절을 첨가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일본 창가의 가사는 구어체와 문어체로 나뉘지만, 우리말 번역에서는 문체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출전이 아닌 경우가 우리말 가사에 문체의 차이가 있고 한자어 구성 비율 등도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일본의 창가를 가져올 때 일본의 특성이 짙은 가사는 배제되었다. 자연물이나 교훈적인 이야기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일본색이 강한 역사, 지리, 군가, 전통 시가 등은 가사를 새롭게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천황의 치세를 상징하는 단어는 옮기지 않았고 학문을 권장하는 가사의 경우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에게 친숙한 중국 고전의 문구를 부분 인용하는 패턴이 여러 차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보통교육창가집』은 단순한 일본 창가의 번안본이 아니라, 비록 정치적 한계가 있으나 조선의 교육적 목표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으려는 노력이 일정 정도 담긴 교과서임을 밝힐 수 있었다.

셋째, 새로 발굴된 가사 내용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조선의 전통교육과 가창에 이용되었던 제재를 창가의 가사에 그대로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사설시조를 그대로 가사로 가져왔고 조선의 아동 교육에 널리 이용되었던 『명심보감』에서 가사를 발췌했으며, 시풍을 살릴 수 있는 도연명의 잡시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가사를 제작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조선의 특성을 일정 정도 『보통교육창가집』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보통교육창가집』의 주제 중, 공부에 임하는 자세, 자연 풍경과 같은 영역에 조선적 색채와 시어를 잘 드러내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보통교육창가집』은 새로운 음악을 도입하고 당시 ‘창가’라는 과목을 대표하는 교과서이면서도, 조선에 잔존해 있는 유교적 산물 위에 신시대의 문명개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이입하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익숙한 가사를 재현해야 했을 것이다. 비록 곡조는 서양의 음계를 따랐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교과서의 노래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철저히 조선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 공적으로 발행된 학부의 첫 근대 음악교과서인 『보통교육창가집』은 그러한 시대 상황이 여과 없이 반영된 교과서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창가의 가사 출전을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곡조와 가사의 종합적인 고찰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References

- Able to know the policy (方針可知). (1910, May 24). *Daehanmeilshinbo*, p. 2.
- Banning Changga (訓禁唱歌). (1909, October 27). *Hwangsungsinmin*, p. 2.
- Changga confiscation (唱歌押收). (1910, April 20). *Daehanmeilshinbo*, p. 2.
- Huh, J. Y. (2022). Metropole and colony: A comparison of the classroom songbooks in Korea and Japan, 1910-1945. *Music and Reality*, (64), 87-136.
- Hukui, T. (2019). One aspect of the theory of public morality and private morality. *Shudo Law Review*, 41(2), 79-99.
- Jeon, S. K., & Kim, S. K. (2020). One aspect of the modern Herbart school's acceptance of pedagogy-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Principles of pedagogy" BY Yoo Geun(柳瑾) and the "Principles of pedagogy" by Nakajima Hanjiro(中島半次郎). *SAI*, (29), 185-226.
- Kim, B. S. (2007). *Chang-ga and the formation of modern poetry*. Seoul: Somyong Press.
- Kim, K. I. (2014).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ang-ga(唱歌) of patriotic-independence's of Choseon and Japan Shoka(唱歌). *Journal of the socie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ology*, 64, 479-500.
- Kim, S. H. (2021a). History of Korean national anthem lyrics and singing songs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The Oriental Studiesm, Dong Yang Hak*, 82, 25-65.

- _____ (2021b). Music control and the repression of the patriotic song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 Based on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66, 5-49.
- Ko, I. S. (2004). *Singing education in modern Korea*. Fukuoka: Kyushu University Press.
- Korean empire government gazette (1906). Korean Modern History Database. Retrieved May 29, 2024, from https://db.history.go.kr/modern/gb/level.do?levelId=gbdh_1906_09_04_a03549_00030
- Min, K. C. (1997). *The index and explication of Korean changga*. Seoul: Korea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Arts.
- Noh, D. E. (1995). *History of modern Korean music*. Seoul: Hangilsa
- Oda, T. (2009). The singing education in modern Japan and Korea and western music: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Japanese and Korean music. *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of Asia-Pacific Studies*, 18, 431-450.
- Park, E. G. (1996) A study of changgas for middle school with organ self-study by Lee, Sangjoon. *Music and Reality*, 12, 228-256.
- _____ (2001). A study of Botongkyoyukchanggajib published by educational department under Japanese government. *Chenan College of Foreign Studies Faculty Research Papers*, 1, 499-519.
- Sato, K., & Matsunobu, K. (2015). Karasawa Tomitaro's classification of the songs listed in the Shogaku Shoukashu: Text analysis and background thoughts. *Bulletin of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Faculty of Education Kumamoto University*, 32, 69-75.
- Shin, K. S., Lee, S. W., Kwon, S. H., Kim, Y. C., Park, K. H., & Lee, H. D. (2012). *Literature explication of Sijo*. Seoul: Rese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 Sung, H. J. (2006a). On Japan's adoption of the Myongsimbogam. *Japanese Cultural Studies*, 19, 145-162.
- _____ (2006b). On Korean's adoption of the Myongsimbogam. *Yongnamhak*, 39, 269-299.
- The notice of appointment (敍任及辭令). (1909, February 25). *Hwangsungsinmin*, p. 2.
- Won, Y. M. (2005).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Sasul-sijo. *The Korean Essay on Sijo Literary Science*, 23, 161-188.
- Yasuda, H. (1999). *The origin of Japan-Korea syoka*. Tokyo: Ongakunotomosha corp.